

채용보장형 계약정원제 산학프로젝트 본격 착수

전북대, 방산기업과 채용 연계 협약 기반... 석사과정 인재 양성
산학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개최... 기업-대학 협업 모델 구체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방위산업 분야 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정원제 산학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20여 개 방산기업과 협력해 계약정원제 석사과정 25명 정원의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채용보장형 인재양성 모델을 구축한 데 이어, 최근 산학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11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이번 워크숍은 전북대 우주항공AI 첨단방산 융합교육사업단(단장 배준수 교수)이 주최하고, 글로벌테크30 사업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평산지원사업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는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휴니테크놀로지스, 풍산에프앤에스,

다나, 생명과기술, 에코텍글로벌, 이스텍바이오, 친한R&B, 포도, D&O 리드, 애드아이 등 12개 첨단방위산업 기업 관계자와 참여 학생, 지도교수, 운영위원,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계약정원제는 기업과의 사전 채용협약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2년간 석사 과정을 이수한 뒤 협약 기업에 입사하는 채용보장형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젝트이다. 대학은 기업 수요를 교육과정과 연구과제에 반영하고, 기업은 교육 단계부터 참여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소속 연구실 소개와 계약정원제 활용 사업 추진 경과 보고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공유했으며, 기업별 산학프로젝트 과제 범위와 일정에 대한 발표를 통해 대학·학생·기업 간 협업 방향을 구체화했다. 참석자들은 산학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채용 연계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배준수 전북대 우주항공AI 첨단방산 융합교육사업단장은 "계약정원제 활용사업은 대학의 교육 역량과 기업의 인재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혁신적인 산학협력 모델"이라며 "학생들에게는 학비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과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평산지원사업 운영단 차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전북대와 참여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대가 K-방산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계약정원제 활용사업의 모범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가 방위산업 분야 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5~6일 워크숍을 열고 계약정원제 산학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올해 전북 융합교육 선도학교 본격 시동

전북교육청, 업무 담당자 사전 연수... 현장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창조 미래 회의실에서 '2026년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 업무 담당자 사전 연수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에는 17개교(초 6개교, 중 6개교, 고 5개교) 업무담당 교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청에서는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도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로 지정된 17개교(초 6개교, 중 6개교, 고 5개교) 업무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수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인근 학교로 확산시키는 '지역 중심 학교'로서의 실천

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에 안착시키는 동시에 올해 새로운 운영 기조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규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학교 자율 시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개발·운영되고 이를 인근 학교로 확산시키는 '지역 중심 학교'로서의 실천

핵심 동력을 '교사 역량'으로 보고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융합교육 수업자료를 통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현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형식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융합교육이 단순한 교과 간의 결합이 아닌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핵심 교육"이라며 "이번 연수가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 '우석챌린지' 장학금 시상식... 163명에 장학금 지원

골드챌린지 2명 각 1000만원 수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재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석챌린지 프로그램' 장학금 시상식을 11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중앙 집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2025학년도 2학기 우석챌린지 장학금 수혜자는 총 163명으로 이 가운데 이고운(한약학과 4년), 박찬이(약학과 4년) 학생이 최고 등급인 골드챌린지로 선정돼 각각 1,0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실버챌린지 18명, 브론즈챌린지 12명 등 단계별 챌린지가 선발돼



장학금이 지급됐다. 우석챌린지는 2006년부터 시행해 온 비교과 역량 인증 프로그램으로, △기본소양과정 △경쟁력강화과정 △전문화과정 등 3개 과정과 12개 활동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

들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1,000만원)·실버(360만원)·브론즈(210만원) 등 단계별 챌린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박노준 총장은 "우석챌린지는 학생들이 학문적 성취를 넘어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더 넓은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M초 사안, 책임 있게 결단해야"

전교조 전북, 전주M초 악성민원 문제 관련 전북교육청에 촉구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전주M초에서 반복되고 있는 악성민원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이 책임질 차례"라며 도교육청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M초는 재작년부터 해당 학급 담임교사가 여섯 차례 교체된 만큼 정상적인 학급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도 담임교사가 수차례 이동하며 신고와 행사거부를 당해 교육활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민원을 대응해 온 학교 관리자들 역시 1년 만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악성민원 사례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특이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도교육청도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부모를 교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현장 안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현재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출석일 수 부족으로 6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육활동의 안전이 보



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부담과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해당 학급은 담임을 맡을 교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는 특정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부담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 온 결과"라며 "추상적인 보호 대책이나 원론적 입장이 아닌, 실제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장학사 또는 장학관의 해당 학급 배치 △민원 대응의 교육청 전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설 명절 맞이 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설 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사업은 교육급여 수급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생일과 명절에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를 지원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학생 1만 8,568명을 대상으로 총 16억7,000만원 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연 3회·총 12만원으로 생일축하 지원금 4만원, 설 명절맞이 지원금 4만원,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 4만원이다.

이번 설 명절맞이 지원금은 2025년 1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육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된다. /오상근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11일 한중우호동맹협회와 전북도 내 외국인 창업 정착·유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국인 예비 창업자 대상 'RISE-UP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RISE-UP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운영

국립군산대·한중우호동맹협회, 외국인주인 예비창업자 발굴·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11일 한중우호동맹협회와 전북도 내 외국인 창업 정착·유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국인 예비 창업자 대상 RISE-UP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예비)창업자 발굴 및 맞춤형 창업 교육·멘토링 공동 운영 △창업 절차, 세무, 노무 등 실무 지원 및 상담(컨설팅) 협력 △네트워킹·IR(피칭)·후속지원 연계를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국립군산대는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 창업 정착·유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RISE-UP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협업 운영했다.

프로그램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9개국 62명이 참여했으며, 외국인 예비 창업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해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단순 이론을 넘어 상황별 실무 교육과 현장 중심 멘토링으로 실질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앞으로도 외국인 창업자 친화형 교육·컨설팅·네트워킹을 고도화하고, 전북 지역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글로벌 창업지원 플랫폼을 RISE 사업을 통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순=김만호 기자

전주대, K-Bakery 마이스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가 지역 유명 베이커리 기업들과 손잡고 진행한 'K-Bakery 마이스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난 10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전북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대 조리 및 식품 관련 학과 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지역 베이커리 산업 현장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베이커리 명가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PNB(주)풍년제과, 맘스브레드, 하나베이커리, 오너클라 등의 대표들이 직접 강사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브랜드 콘셉트 기반 제품 개발 △지역 특산물 활용 레시피 응용 △실무 공정 이해 및 생산 전략 △창업 노하우 및 매장 운영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단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매장을 견학하는 '유수 로컬 베이커리 벤치마킹' 과정을 병행해 학생들의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직무분석 전담반 운영

교육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본청·시군 교육지원청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환경과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분석 전담반(TF)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직무분석 TF는 본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직무 현황 점검 및 검토 △유사·중복 업무 분석 △학교현장 지원 강화 방안 등 현장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직무분석을 하게 된다.

특히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기관 간 역할 분담 구조의 적정성, 학교 지원 기능의 실효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전북교육청은 직무분석 TF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연한 조직운영 및 인력 운용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행정 역할 변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타 시도 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전북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직무분석 TF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이번 직무분석은 단기적인 업무 조정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행정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현장 수요와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와 조직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인력 운용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직 공개채용... 23~26일 원서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무원직 7개 직종, 23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용원은 직종별로 교무실무사 15명, 조리실무사 162명, 특수교육지도사 30명, 늘봄실무사 21명, 교육복지조정자 1명, 교육복지사 7명, 위(Wee)센터 임상심리사 1명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3~26일까지 온라인(교육지원청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서접수 단계에서 응시자격, 가점 등의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므로 응시자는 접수 기간 전에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응시자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창조미래 회의실에서 제공하는 원서제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직종별 응시 자격요건 및 세부 일정, 원서접수 매뉴얼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